

국민의힘 '윤석열당' 재편되나...정치권 지각변동 주목

이대녀 잃고 호남 고전

이준석 대표 책임론 불가피

인위적 정계개편 쉽지 않을 듯

국민의당과 합당 여부 첫 시험대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으면서 보수 진영 내 지각변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끌어 낸 만큼, 당 안팎의 권력 지형 변화도 예상된다. 10일 정가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우선 당내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포함한

우호적인 현역 의원들을 당의 전면에 내세우고, 캠프 핵심 인력들을 청와대에 포진시키는 방향으로 신 여권내 장악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치개혁을 포함한 정치권 내 변화를 꾀하면서 보수진영 내 오랜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색채를 빼고 친정체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윤 당선인이 집권과 동시에 당과 완벽한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의 속내는 이기기도 복잡한 모습이다.

실제 개표 결과가 예상했던 낙승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정권교체 여론 속에서도 초박빙 진담승을 겨우 거두면서 민심의 절대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으로선 신경 쓰이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책임론도 불가피하다. 이대녀(20대 여성)표심을 완전히 잃고 호남에서도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이처럼 이기기도 웃을 수만은 없는 복잡한 내부 사정 탓에 윤 당선인과 당의 절대적인 밀월관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0선 정치신인'으로 기존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과 스킨십이 적었던 데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으로 현역의원들의 공천과도 무관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다.

석 달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시·구의원 등 공천에는 각 시·도당과 당협위원장들이 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2년 뒤 총선을 내다보더라도, 청와대가 공

식적으로 공천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당장 국민의힘이 '윤석열당'으로 체질 급변을 꾀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여소야대 국면과 맞물려 협치와 협력을 전제로 한 정계개편 시나리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세에서 여러 차례 "민주당의 양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과 합리적이고 멋진 협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친이재정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인사들과는 협력해 집권 초기를 '식물 대통령'으로 허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평소 주변에 "정파와 관계없이 인재를 넓고 깊게 쓰겠다"고 강조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패배 책임론과 내부 당

권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3김 정치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계개편 여부와 관계없이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언했던 '통합의 정치' 실현 여부가 집권 초기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촛불민심의 여망을 받아들인 문재인 정권이 극한의 진영 논리 속에 5년 만에 무너진 점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으로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대선 직전 쓴 '단일화 정구서'를 어떻게 풀어내갈지가 통합정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몰표에도 패배 상실감 커 민주 텃밭 정치 지형 요동

윤석열 승리...허탈한 호남 표심

지방선거·총선 영향 불가피

국힘, 교두보 확보 보폭 확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정권교체가 현실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 등 호남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몰아줬지만, 대선에서 패배함에 따라 허탈해진 호남 표심이 향후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대했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역대 대선 최고 득표율로 호남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정치적 역할의 확장이 예상된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민주당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90%를 넘는 표를 몰아줬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3.53% 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이 때문에 당시 호남민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졌고, 대선 이후 수일간 '침묵의 도시'가 되었다. 그 당시 상실감과 허탈감은 향후 민주당에 대한 가혹한 '회초리' 민심으로 변했고, 18대 대선 이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호남의 '녹색(국민의당) 돌풍'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호남에서 반문(反文·반 문재인) 정서도 심해지면서 19대 대선에서는 '촛불 혁명'이라는 바람에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광주와 전남에서 60% 가량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따라서 이번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에 힘을 보태며 정권 재창출에 기대를 걸었던 호남 민심의 변화도 점쳐진다. 지역 유권자들의 몰표 지지에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대선 결과는 당장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2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유권자들의 이러한 염원에 민주당이 부응하지 못한 만큼 어느 때보다 강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선 결과가 광주·전남이 민주당 텃밭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란 시각도 있으나, 대대적인 인적 쇄신 없이는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을 위로하기 힘들 것이라 관측이 많다.

이러한 인적쇄신은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고, 대선 패배를 책임지고 총사퇴한 민주당 지도부 대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경우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공전 툄 싸움'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한 정치권 인사는 "실망한 지역민들이 지방선거는 물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두렵다"며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10%를 웃도는 득표율로 교두보를 확보했다.

기대했던 30%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역대 어느 대선보다 높은 득표율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된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서 실종상태나 다름없었던 국민의힘은 무너진 지역 내 정치적 기반을 대선 승리를 발판 삼아 재정비해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호남정치'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국민의당에 몸을 담았다가 대선 전 국민의힘으로 옮겨 선거를 치른 인사들도 지역 내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고 정치적 기반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대한 몰표와 국민의힘의 교두보 확보는 그동안 지역 내에서 제1야당 역할을 했던 정의당 위축으로 이어지고, 진보당 등 중소정당도 설 자리를 잡아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초박빙의 대선 결과는 양당 정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는 지방정치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윤석열 지지 감사 드립니다" 10일 오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서 지나는 차량들에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캠프 좌장 권성동, 총괄선대본부장 권영세

윤석열의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맥은 크게 '국민의힘 친운 그룹' '외부 자문단' '서초동인맥'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 남짓 지난 정치 신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는 여의도에서 전뺨가 굵은 참모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다.

당 내에서는 4선의 권성동 의원이 만행격이다. 캠프 좌장을 맡아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에 안착하도록 돕고 치열했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3선의 장제원 의원은 주변이 인정하는 윤 당선인의 '복심'이다. 이준석 대표의 견제를 받아 백의중군하면서 국민당 안철수 대표 측과의 단일화 협상에서 '전권 대리인'으로 나서 결국 안 대표의 지지 선언을 끌어내며 실력을 입증했다.

재선의 윤한홍 의원은 초창기 캠프에서 상황부 실장을 맡아 사실상 실무를 총괄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대장동 특검법안 논의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원내 현안에 대해 윤 당선인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정권 교체 동력을 뒷받침했다.

이 밖에 서울법대 2년 선배로, 43년 지기인 4선의 권영세 의원은 선대위 해산 후 총괄선대본부장 겸 사무총장을 맡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책본부장으로서 정책·공약 수립을 진두지휘했다. 3선의 윤재옥 상황실장과 재선의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도 윤 당선인의 핵심 참모로서 효과적인 선거 전략을 펼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재선의 이양수 수석대변

인 윤 당선인에게 직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참모로 알려졌다. 초선 김은혜 공보단장은 저돌적인 이슈 파이팅으로 윤 당선인의 신임을 쌓았다. 서일준 의원은 후보 비서실장, 이만희 의원은 수행단장, 이용 의원은 수행실장으로 각각 윤 당선인을 그림자 보좌했다. 윤 당선인의 향후 국정 방향을 가능할 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인사들로는 선거대책본부 소속 전문가 그룹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로 불리며 경제공약을 총괄했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출신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조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1차관을 지낸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 250만호 주택 공급·청년 원거주책 등 부동산 공약 설계를 총괄했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대표적인 '개국공신'이다. 윤 당선인이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캠프 좌장을 맡으며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